



투쟁 외치는 전국교육공무직원부 전북지부

전국교육공무직원부 전북지부 총파업 대회가 열린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북 농촌유학 '인기'

2025학년도 1차 모집 총 125명 신청... 지역별로 순창이 가장 많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전북 농촌유학을 모집한 결과, 125명이 신규 신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27명, 경기 60명, 광주 11명, 인천 7명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남 7명, 충남 4명, 대전 3명, 부산 2명 등 전국에서 농촌유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학년도 전북 농촌유학 학교는 순창, 임실, 진안 등 12개 지역의 41개 학교다.

중학교의 경우 기존 완주 운주중학교에 옹포중학교(익산), 지사중학교(임실), 지원중학교(부안) 등 3곳이 추가됐다. 농촌유학 지역별 신청자는 순창이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실 43명, 진안 15명, 남원·완주 각 5명 순이었다. 농촌유학 희망 학생들은 사전방문 기간(6~12일)에 유학학교와 거주시설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 경합이 있는 학교의 경우 면담 결과

에 따라 최종 유학생이 선정된다. 한편 내년에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확대된다. 순창군 인계면에 단독주택 12세대가 새로 마련됐고, 진안군 부귀면(다세대주택 18세대)과 임실군 지사면(단독주택 12세대)에도 2025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 농촌유학 참가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설명회를 4회 이상 갖는 등 농촌유학의 매력을 알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보육 9개 기업 '우수 중소기업' 인정

희망전북 POST-BI 등

입주기업 9곳 기술력 인정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9곳이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클베어스가 '2024 해양바이오 기념식'에서 해양생물 기반 기능성 가공제 섬유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한 공로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11월 19일, ㈜헤어피어테크놀로지 자기업인 ㈜헤어피어테크놀로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 인포' 종합 성과보고회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헤어피어테크놀로지는 2024년 전북대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개발용 지능형 기계장비를 개발해 노동집약적인 가발 산업에서 높은 생산 효율성을 달성, 연간 35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11월 28일 열린 '2024 창업기술혁신대전'에서는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와 희망전북 POST-BI 입주기업 7곳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은 서해테크는 선박 구성 부품 및 친환경 에너지 제품을 제조하며, 2024년 고용인원을 전년 대비 27.6% 증가한 60명으로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지인인터는 AI 기반 철강 불량 산출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3분기까지 1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받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4 창업기술혁신대전'에서는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와 희망전북 POST-BI 입주기업 7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지텍은 인체공학적인 의류용 확대 경을 제조하며 1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달새안은 붕동 생각을 활용한 디지털을 개발하며 생강칩, 생강즙, 양갱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해외 수출을 확대 중이다. 전주시장을 받은 ㈜바이오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투자회사로부터 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군산시장을 수상한 ㈜에스이엔지는 친환경 모듈러 전문 기업으로 새 만능개발청과 65억 원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업은 10월 '유니스트 스타트업 창업대전'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1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완주군수상을 받은 ㈜유스타팜은 육류 밀키트 및 절임식품 제조 기업으로, 미국에 최근 3년간 3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기업은 자동화 생산시설을 완주군에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을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국경수 창업보육센터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리 기업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창업 역량과 최적화된 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우수 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제2회 전북청년 빅데이터 경진' 17개 학생팀 시상

중고등 3·대학부 14팀 등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회장 유철중)와 전북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안정용)이 공동 주최한 '제2회 전북 청년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이 지난 5일 한국식품연구원 인계홀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이 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지역 또는 기관의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전북지역 주요 기관과 대학들이 공동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



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시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현안 해결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총 40건의 작품이 접수돼 1차 평가를 통과한 23개 팀이 멘토링 과정을 거쳐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최종 평가를 통해 중고등부 3팀, 대학부 14팀 등 총 17팀이 선정돼 이날 시상식

을 가졌다. 중고등부에서는 김제여자고등학교 윤슬팀(송희진, 정미나, 이채연)의 '전동 키보드의 새로운 창조'가 우수상을 받은 등 3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학부에서는 전북대 NO CLOTHES팀(임정민, 강민수, 이기백, 이해연)의 '전주시 원뿔콘 및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입지 선정 방안'과 전북대 신도불이팀(최운서, 김윤수)의 '지역 농산물 영양 분석을 통한 식단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14개 팀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오늘 오픈

전주교대서 개소식... 신기술 현장 적용 활성화 지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9일 교사교육센터에서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들과 사업 관계자, 실증 교사 및 기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전주교육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문 기관으로,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해 신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운영된다. 이번 개소식은 1~2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공간 투어 및 실증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박병춘 총장은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가 교육 혁신을 위한 창의적 발상으로서 전북 지역의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9~13일 '전북교육인권주간'

너랑나랑 인권친구 캠페인·세계인권선언 수업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13일 '전북교육인권주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들은 물론 보호자까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매년 12월 둘째 주를 전북인권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의 인권, 존중으로 세울:인(人)'을 주제로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먼저 너랑나랑 인권친구 캠페인이 희망 학교 50개교에서 운영된다. 학교자치와 연계해 등굣길 캠페인 활동, 우리학교 상호존중 언어 및 슬로건 제작, 학교 구성원 릴레이 캠페인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된다. 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그래픽 인권수업 및 세계인권선언 수업도 27개 학교에서 이뤄진다. '멋진 민주단어', '긴 여행', '당신을 축재해 드립니다',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 등 인권 그래픽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인권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 김명철 센터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북교육인권주간을 운영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 기간 많은 학교들이 우리 모두의 인권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청동북카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학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준비 만전

전주교육지원청, 통합지원 협력학교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기)은 지난 6일 청동북카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학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력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운영 성과를 나눔으로써 학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내년도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교육지원청으로서 교육지원청 내외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초·중학교 6개교(전주대정초, 전주팔복초, 전주풍남초, 전주남중, 전주덕진중, 전주효정중)를 협력학교로 선정,운영했다. 협력학교는 통합지원팀을 운영해 학교 구성원 간 협력적 소통으로 도움이 되고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지

원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남중학교 한옥경 교장은 지역사회로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를, 전주팔복초등학교 김명숙 교장은 '전주 학교-지역 네트워크' 참여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내년 협력학교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기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학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학생과 학교를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제성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뤄지는 지원을 말한다. /장은성 기자